

국립나주박물관

8월22일까지 '호남의 옛 부엌' 전
부뚜막·발화대·목제식기 등 전시



온기의 공간... 옛 부엌의 풍경 속으로

전통 농경사회 부엌의 중심은 부뚜막이었다. 솥을 걸 수 있도록 만든 아궁이 인근에 흙을 쌓아 만든 턱이 바로 부뚜막이다. 조리대나 개수대와 같은 기능을 지닌 시설 가운데 하나로, 좀더 넓게 말하면 아궁이 위에 솥을 거는 근처를 말한다.

산업화 이전,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 부엌은 단순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닌 가족의 마음을 나누는 추억의 공간이었다. 부뚜막 주위에 둘러앉아 아궁이에 고구마나 옥수수를 넣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일상의 풍경이었다.

농도인 남도의 부엌은 오늘의 식문화를 일군 토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별 다양한 그릇과 식기 도구, 불 문화, 음식 등 요인들이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부엌을 매개로 호남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릴 눈길을 끈다. 8월 22일까지 국립나주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리는 '따뜻한 마음의 공간 호남의 옛 부엌'이 그것. 이번 특별전은 고대 호남지역의 부엌 모습 뿐 아니라 가족과 사람이 만나는 온기의 공간 부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아울러 마한시대부터 백제시대 초기까지의 고대 사회를 아우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가장 먼저 부엌의 필수시설인 부뚜막이 소개된다. 1부 '불에서 태어난 부엌'은 부뚜막과 불이 주

요 모티브다. 불을 피우는 발화구를 비롯해 호남 지역 부뚜막 특징으로 언급되는 아궁이벽체 보강 시설, 토기 솥 받침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아궁이에는 관람객들에게 작품이라는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 모자이크 방식으로 배치했다.

전시물을 보고 난 뒤에는 복원된 호남의 고대 부엌을 만난다. 실제 집터와 유사한 규모의 공간을 배치하고, 광주 향토 유적 부뚜막 유구를 전시했다. 전체적으로 옛 사람들이 살았던 부엌에 대한 모습이 정갈하게 꾸며져 있다.

부엌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와 용기를 만나는 공간은 사뭇 흥미롭다. 2부 '부엌 속 풍경'은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도구들이 주인공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발화도로 추정되는 신창동 유적지 발굴 발화대와 발화막대는 당대 사람들의 불문화를 추정할 수 있다. 움푹 파인 발화대 안쪽에 기다란 발화막대를 비벼 불꽃을 일으켰을 고대 사람들의 모습이 가늠된다.

아울러 식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나무 절구공이, 나무 도마를 비롯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식기류도 전시돼 있다. 토제 그릇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목제 식기는 오늘의 식기와 비교 가능하다.

음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을 계란모양의 토기는 생김새부터 눈길을 끈다. 끝이 뾰족한데 비해

주둥이는 넓어 끝무 형상을 닮았다는 인상을 준다.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려 했던 고대 사람들이 지혜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투박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저장용 토기는 음식과 식재료를 보관하는 데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엌에 담긴 마음'은 우리나라 대표 가락신앙 중 하나인 조왕신이 주제다.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은 가족의 화평을 바라는 공간이 부엌이라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말해준다. 새벽녘 부뚜막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던 옛 어머니들의 모습은 조왕신앙과 관련돼 있다.

특히 호남지역은 마한 이후 백제시기 조왕신이 가정신앙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남아 있다. 모형토기와 부뚜막 사발 등을 통해 조왕신앙이 근현대까지 이어지는 면들을 조망할 수 있다.

전시 외에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나의 작은 부엌 만들기', '소원쓰기'가 그것. 전시장의 부엌 도구를 떠올리며 나만의 부엌을 꾸며보는 체험은 옛사람들의 풍습을 재현할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며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온라인 가족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안 출신 백정희 작가 '가라앉는 마을' 펴내

무안 출신 백정희 작가가 두 번째 창작집 '가라앉는 마을' (푸른사상·사진)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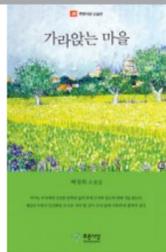
이번 소설집에는 소외된 계층과 약자들을 향한 속 깊은 애정이 담긴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본의 논리에서 척취를 당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의 세태를 반영한다.

작가는 경제적 빈곤의 이유로 뿌리내렸던 곳에서 주변부로 쫓겨나고 개인과 사회 폭력에 직면하는 현실을 직시한다. 특히 도시 재개발과 농촌 개발에 따른 거주민의 계급적 분리와 생존에 직면한 현실은 사뭇 생생하다.

표제작 '가라앉는 마을'은 자본의 논리가 어떻

게 거주자인 인간을 추방하고 배제하는지 보여준다. 소설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개발되는 생수 공장의 취수 작업으로 인해 마을이 가라앉는 이야기를 다룬다. 인간의 근원적 삶의 터전인 '땅'이 자본과 문명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고 상실되는지 예리한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이명박 정권 시기 '뉴타운 재개발' 광풍으로 휩쓸려간 도시의 주거지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바람은 길이 없다'를 비롯해 '계단 뒤에 있는 집', '마지막 집' 등장인물은 낯은 연립부터 임대 아파트까지 주거 공간을 배경으로 가진 자와 빈곤한 자 사이의 차별과 폭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명원 문학평론가는 "이 소설집이 백정희의 존재론적 거주 근거를 문화와 현실 모두에서 견고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계급 도시에서 인간화된 도시로 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고 평한다.

한편 백 작가는 1998년 '농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박화성문학상, 토지문화제 평사리문학상 대상,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소설집 '타란'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토니 윤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2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스타인웨이가 선택한 피아니스트 토니 윤이 광주에 온다. '2021 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 인 코리아'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2007년 시작한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는 세계적인 명품 피아노 회사인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가 매년 국제 피아노 콩쿠르 수상자 가운데 뛰어난 수상자들을 선발해 세계 곳곳에서 선보이는 공연이다.

이날 무대에는 2019 제1회 중국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자인 캐나다 출신 토니 윤이 오른다. 레퍼토리는 바흐-부조니 '사르나 라 단조', '주여 내가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베토벤 '소나타 제15번 전원', 리스트-벨리니 '노르마의 회상', 바그너

-리스트 '파르지팔로부터의 거룩한 성배 행렬', 스토라빈스키-아고스티 '불새 모음곡' 등이다.

토니 윤은 제1회 중국 국제 음악 콩쿠르 최종라운드에서 마에스트로 야닉 네제 세경 지휘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해 1등 수상 후 북미 초청으로 야닉 네제 세경과 다시 한번 무대를 가졌다. 토마스&에본 쿠퍼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필라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투어를 비롯해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으며, 현재 미국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공부중이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활기찼던 흔적이 지워진 적막함

예술공간집, 17~30일 'erase' 전
18일 작가 참여 '아트 토크' 진행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이 광주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17일부터 30일까지 'eras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예술공간집 (광주시 동구 제봉로 158번길 11-5)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 중인 강규건·김소정·이현·지문규 작가가 참여했으며 18일 오후 2시에는 참여작가들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트토크도 열릴 예정이다.

강규건 작가의 그림은 신종 바이러스 여파가 평범했던 일상을 지워나가는 데 주목했다. 우연히 발견한 옛날 사진 속 즐거운 일상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고 그 마음을 반영하듯 작품 속 풍경 속엔 과거의 활기침이 사라진 적막함이 흐른다.

김소정 작가는 삶의 공간인 허름한 골목길에 쌓여있는 일상의 잔존물들을 소재로 작업했다. '밤메아리', '수습' 등의 작품을 통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묘사된 어둠 속 부유물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일지도 모른다.

이 현 작가는 미술에 관한 형식과 사상,태도를 제거하기 위해 미술사 속 명작들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지워냈다. '밀레비치 지워버리기' 연작을 통



강규건 작 '폭죽'

해 색, 형태, 이미지들을 과감하게 지워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어느 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비집고 솟아난 가로수의 인공적인 모습에 이질적 감정을 느낀 지문규 작가는 까만 화면을 지워나가며 그린 나무들을 통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